[특집]

수도회 ‘총회 구성’의 변천과정과 한국 내 수도회 ‘총회 구성’에 관한 규정들

■
김 현 조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들어가는 말

- I. 총회 구성의 역사적 특징
 - 1. 수도승 전통
 - 2. 활동수도회들의 등장과 총회 구성의 제도화
 - 3. 14세기부터 1917년 법전까지 총회의 발전
- II. 보편법 법제화의 역사 안에서의 특징
 - 1. 1917년 법전과 그 이후
 -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
 - 3. 1983년 보편 교회법전의 입법과정
- III. 역사적 특징으로 비춰본 한국 내 수도회들의 총회 구성에 관한 규정들
 - 1. 성좌설립수도회들
 - 2. 교구설립수도회들
 - 3. 역사적 특징으로 비춰본 국내 수도회들(성좌 및 교구설립)
 - 4. 종합적 전망

나오는 말

들어가는 말

교회 입법자는 1983년 교회법전에서 “회헌 규범에 따라 그 (수도) 회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는 총회는 회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 안에 진정한 일치와 표징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¹⁾고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총회의 구성은 두 가지 과제를 전제한다. 첫째는 회 전체를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둘째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일치의 표징이 되는 구성이어야 한다. 총회의 구성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

1) 교회법 제631조 제1항.

하는 법 제도적 배려이자 수단이 되어야 한다. 총회의 구성은 단순한 인원의 물리적 배치나 회의의 시간적 진행의 외적 형태로 회의의 능률을 높이려는 시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통신 매체를 통한 다수의 참여를 충족시키는 것만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일치도 아닌 것이다.²⁾ 총회의 구성은 총회 목적 즉 회(會) 전체를 대표하고 사랑 안에 진정한 일치의 표징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전제로 한다. 이는 공동책임성과 친교로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새롭게 이해된 교회관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공동합의성(Synodalitas)의 구현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회에 대한 연구는 총회 일반의 역사와 법제사를 총체적으로 다루거나 총회의 한 부분에 대한 연구 혹은 특정 수도회의 총회에 대한 연구 및 총회의 법적 연구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³⁾ 이는 부분적 특성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었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맥락 안에서 연관된 요소들의 상호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상대적으로 '총회 구성'의 의미를 깊게 하는 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총회의 여러 부분 중에 구체적으로 '총회 구성'(소집, 주기, 인원 구성, 기간, 진행 절차의 구성 등)의 역사적 변천과 보편교회의 입

2) 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rescript to the General Moderators of the Little Company of Mary(LCM)*, 1 July 2020, prot. no. Sp.R. 2452/20; FRANCIS, *Message of the Holy Father Francis for the 53rd World Communications Day*,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24 January, 2019.

3)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Giuseppe Scarvaglieri, *Il Capitolo generale(Preparazione Celebrazione Attuazione)*, Milano, Àcora, 2002; A. Sanna, *Il capitolo conventuale*, Roma, Curia generale OFMConv., 1978; Fillippo Iannone, *IL Capitolo generale(Saggio Storico-Giuridico)*, Roma, Edizioni Dehoniane, 1998; A. Peinador, "Capitula et Consilia in regimine religiosorum. Observationes pastorales", in *Commentarium pro Religiosis* 46(1965), pp.345-355; P.L. Nava, *L'evento capitolare. Dall'indizione per la convocazione alla ricezione*, Centro Studi USMI, Roma 1997; L. Gutierrez, "De natura juridica Capituli generalis specialis religiosorum", in *Commentarium pro Religiosis* 48(1967), pp.241-258; U. Berlière, "le Chapitres généraux de l'ordre de Saint Benoit avant le IV Concile de Latran (1215)", in *Revue Bénédictine* 8(1981), pp.255-264; S. Ara, "Los capitulos provinciales de renovación y el derecho del los Hermanos Menores Capuchinos", in *Estudios franciscanos* 77(1976), pp.253-267; S.M. Alonso, "Qué es un Capitulo general", in *Vida Religiosa* 50-31(1981), pp.74-80.

법 법제사를 다루는 한편 총회 구성의 공동책임성과 공동합의성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현재 한국 수교회들이 자신의 고유법에 담긴 총회 구성의 특징에 대한 역사적 특징과의 접목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총회 구성의 특징을 더 깊게 하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수교회들이 자신의 고유법에 담긴 총회 구성의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견인하는 동시에, 그 적용의 적합성도 감지할 수 있을 배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각 수도회의 고유한 특성에 맞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법의 정신을 살리고 총회 구성의 입법 시도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내 수교회들의 총회 구성에 관한 특징은 그것이 규정되기까지의 과정 안에서 역사적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I. 총회 구성의 역사적 특징

우리가 사용하는 ‘총회’(capitulum generale)라는 용어는 8세기에 ‘회의’(capitulum)에서 출발한다. 공동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무일도(officio divino)를 하기 위한 모임에도 사용되었다. 이후 이 용어는 이 목적을 위한 장소(방)로 확장되었고, 마침내 공동체가 장상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선서한 규칙에 그들의 삶을 점점 더 잘 적응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대면하는 회의 자체로 확장되었다. 12세기와 13세기에 시토회의 입법과 탁발 수교회들이 법적 성격의 모임을 통해 “총”(generale)이라는 등급을 표현하는 단어와 함께 “총회”(capitulum generale)는 참되고 고유한 통치 기구로 변형되었다.⁴⁾

1. 수도승 전통

총회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역사적 첫 출발은 베네딕토회

4) Filippo Iannone, *IL CAPITULO GENERALE(Saggio Storico-Giuridico)*, Roma, Edizioni Dehoniane, 1998, p.25.

에서부터다.⁵⁾ 당시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들 간의 차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⁶⁾ 역사적 흐름 속에 총회는 개별 수도승원들의 장상들이 경영과 관리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때로는 제명도 따르는 총장의 공동체적 교시로 마무리되는 구성이었다.⁷⁾ 총회의 구성이 입법화된 것은 시토회(Cîteaux)의 세 번째 압바스인 스테판 하딩(S. Stefano Harding)이 준비한 “사랑의 헌장”(Charta Caritatis)에서이다.⁸⁾ 여기서 총회는 매년 개최되는 주기성을 확보해야 했다. 건강상의 이유에서만 대리자를 통한 총회 참석 가능성도 제시하면서 강한 법적 구속력이 존재했다.⁹⁾ 시토회 초기 입법에서는 개별 수도승원 압바스들의 극단적 독립을 억제하고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총회 구성의 목적도 드러난다.¹⁰⁾ 한편 12세기부터 클루니

5) John P. Beal, James A. Coriden and Thomas J. Green, eds.,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N.Y.: Paulist Press, 2000, p.794.

6) 그 이유는 각 수도승원은 다른 수도승원과 독립적으로 자율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회의가 개최되면 회의의 구성원들은 서로 또는 회의에 참여하는 압바스들에게 종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Fillippo Iannone, *op.cit.*, p.27).

7) Fillippo Iannone, *op.cit.*, pp.26-27. 필립보는 다음을 근거로 이를 제시하고 있다. VAN DEN BROECK G., “Le Chapitre Général dans les Instituts Religieux”, in *Apoll.* 40 (1967), p.492; LADEUZE P., *Etude sur le cénobitisme pakhomien, pendant le IV siècle et la première moitié du V*, Paris, Paulin Laudeuze, 2018, p.286; Cfr. MISSEREY L. R., “Chapitres de Religieux”, in *Dictionnaire de droit canonique*, 3, coll., pp.595-596.

8) ‘이것은 1119년 총회에서 출판되고 같은 해 12월 23일 교황 칼리스토 2세에 의해 솔리유(Saulieu)에서 승인되었음을 문헌 3장 “총회의 구성과 권위 그리고 형태에 대하여(De institutione, auctoritate et forma Capituli Generalis)”에서 발견할 수 있다’(Stephanus Harding, *Carta Caritatis*, in: *Constitutiones Sacri Ordinis Cisterciensis*,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34, p.8ss를 Priamo Etzi, *Attività di governo e prassi della consultazione n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una lettura dei canoni 627 e 127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Pontificium Athenaeum Antonianum, 2001, pp.27-28에서 재인용).

9) Stephanus Harding, *Carta Caritatis* cap. XV, *op.cit.*, p.8ss; ‘건강의 이유 혹은 지역 주교에게 순명의 이유로 불참이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석이 장애 되는 압바스들은 대리자를 대신 보내야 했다. 정당하지 않은 불참 혹은 대리자 없는 것은 보속이 따랐다’(VAN WAEFELGHEM R., “Les premiers Statuts de l’Ordre de Prémontré”, in *A.O.P.* 9(1913), p.36을 Fillippo Iannone, *op.cit.*, pp.29-31에서 재인용).

10) 그 예는 1128년에 프레몬트르(Prémontré)의 압바스인 우고 데 포세스(Ugo de Fosses)가 극단적 독립을 명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회 전체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압바스들을 자기의 수도승원으로 불러들였던 것을 들 수 있다(Fillippo Iannone,

(Cluny) 수도회에서 폐막 예정일이 정해지지 않은 총 회합(assembly generali)이 시작되었고 그중에서도 1132년에 가경자 삐에트로(Pietro)가 소집하고 주재한 회합(assembly)은 200명의 수도원장(Priori)과 1200명의 수도승이 참석하는 놀랄만한 인원 구성을 보였다. 이후 1200년에 제정된 법령에서 그리고 교황들을 통해서 회의 개혁의 수단으로 매년 개최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¹¹⁾ 한편 이들 회의의 구성이 중앙집권적인 1인의 소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징 때문에 자신들 회의에 권위를 확보하려는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고¹²⁾ 이에 ‘1203년 2월 27일 이노첸조(Innocenzo) 3세는 공식적으로 각 수도승원에 적절한 개혁을 도입하는 책임 있는 방문자들을 지정하고 일부 대 수도원장들을 직접 자신에게 종속되도록 명하였다.’¹³⁾ 이후 총회 제도의 일반화를 위해,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 12장에서 구체적으로 총회 3년 주기를 담은 규정이 제시되었다.¹⁴⁾ 이 부분에서 총회 구성에 관해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수도회의 총회에 다른 회의 전문가를 초청하도록 규정하였다는 것이다.¹⁵⁾

op.cit., p.31).

11) 그것은 1136년 11월 17일의 이노첸조(Innocenzo) 2세의 서한에 랑스(Reims) 관구의 대 수도원들이 회의 업무를 함께 다루기 위해 연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논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클루니의 아들이자 개혁자인 그레고리오 9세는 이전 시대에 간헐적인 형태로 그리고 대수도원장 우고 5세(Ugo V 1199~1207) 하에서 이미 정기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총회를, 회들을 개혁하는 중추적 수단 중 하나로 부과하면서 매년 개최되도록 하였다(Cf. Filippo Iannone, *op.cit.*, pp.31~34).

12) 즉, 대 수도원장들은 교황인 이노첸조 2세, 아드리아노(Adriano) 4세 및 알렉산드로(Alexandro) 3세에게 그들이 공통으로 내린 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면서 승인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교황권 자체는 이 회의를 지지하기 위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Filippo Iannone, *op.cit.*, p.32).

13) Cf. LESAGE G., Capitolo, in D.I.P., 2, col. 167~168을 Filippo Iannone, *op.cit.*, p.32에서 재인용.

14) ‘모든 왕국이나 지방(관구)에서 교구장 주교의 권한에 속한 회의는 제외하고 아직 거행되지 않는 고유 대수도원장이 없는 대수도원들의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어야 한다’(MANSI, t. XXII, “De Communibus capitulis monachorum”, coll. 999~1000을 Filippo Iannone, *op.cit.*, p.33에서 재인용).

15) ‘공의회는 또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 조언과 적절한 도움을 주도록 시토회의 이웃 대수도원장들이 애덕의 정신으로 초대될 것을 제정한다’(Cf. MANSI, t. XXII, coll. 999~1000을 Filippo Iannone, *op.cit.*, p.33에서 재인용).

이상의 수도승 역사에서 총회는 모든 회원이 대등하게 참여하기도 하고 이후 원장들과 압바스들로 구성되기도 했다. 특별히 회의는 매년 개최되었고 회원들의 참여에 강한 구속력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렇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도에서 공동합의성과 공동책임성을 반영하는 구성이 싹트기 시작했다. 또한 교황들이 총회를 회를 개혁하려는 수단으로 삼았으며 산발적 소집으로 총회의 권위가 문제 되어 방문자의 초빙도 고려하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 활동수도회들의 등장과 총회 구성의 제도화

한편 탁발 수도회의 탄생으로 수도회(ordō)의 통치가 새롭게 탄생한다. 중앙집권적 통치와 수도자들의 참여라는 두 가지 특별하고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이루는 도미니코회의 설립(13세기 초)에서 그 서막을 볼 수 있다.¹⁶⁾ 모든 수도회(ordō)의 총장은 회 전체의 삶과 활동을 이끌면서 회를 일치시켜야 했다. 이에 관구들과 지역 수도원들의 장상들이 필요했으며 이들과 사도직을 논의하기 위해 총회의 모임이 필요했다.¹⁷⁾ 이러한 제도적 정착 과정에서 총회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성 도미니코의 직 후계자 조르다노(Maestro Giordano di Sassonia)에 의해 작성된 '초기 회헌'(Constitutiones Primaevae)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회헌에서 전체 총회와 관구 총회를 구분하여 소집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총회 구성의 핵심 위원인 결정자들에 대한 규정과 관구장 유고 시의 규정도 함께 다루는 구성상의 특징도 볼 수 있다.¹⁸⁾ 이 회헌에 총회가 매년 성령강림 시기에 개최되고 관구장들의 회합과 관구 회의에서 선출된 결정자들의 두 회합이 교대로 포함된다.¹⁹⁾ 구성이 매우 다른 이러한 회합들은 동일한

16) Cf. Priamo Etzi, *op.cit.*, p.29.

17) Cf. *Ibid.*

18) Dominicans, *op.cit.*, p.31, nota 15~16을 Priamo Etzi, *op.cit.*, pp.30~31에서 재인용; Cf. Fillippo Iannone, *op.cit.*, pp.33~35.

19) Cf. WALZ A.M., *Compendium Historiae Ordinis Praedicatorum*, Rom, Herder, 1930, pp.98~104를 Fillippo Iannone, *op.cit.*, p.35에서 재인용.

권한을 가졌다. ‘총사부’(maestro generale)²⁰⁾에 대한 소집 없이, 총회에 소집된 이들은 총사부를 폐위시킬 권한을 포함하는 절대적 권한도 부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원 구성의 독특한 변화도 볼 수 있는데, 법적 중단 이후 총회는 관구 수도원장들과 총결정자들의 회의에서 관구의 비례대표 혹은 관구 수도원장들 없이 총사부가 주재하는 결정자들만의 회의로 교체할 수 있었다. 이후 다시 관구 수도원장들이 모이고 이전 제도에 따른 구성이 다시 시작되었다. 총사부의 선출 회의는 항상 관구 수도원장들과 각 관구의 두 결정자들로 구성되었다.²¹⁾ 회가 점차 체계화되면서, 총회 또는 관구 총회가 거행될 때 이들은 장상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총회가 끝나면 이들의 역할도 끝났다.²²⁾ 회의의 구성원들은 회(Ordine)의 시작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 단순서원(voti semplici) 혹은 유기서원(voti temporanei) 수도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장엄서원 수도자(professi soleni)들이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출 회의에는 서원 연차에 따라 회의 참석과 투표권이 제약되었던 반면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서원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투표권을 가졌다는 것이 흥미롭다.²³⁾ 이는 회의에서 사안에 따라

20) 도미니코회에서는 총수석(prioress general)과 총사부(master general)와 뒤에 등장할 프란치스코회에서의 총봉사자(minister general)는 다른 수도회의 ‘총원장(superior general)’에 해당한다.(Cf. John P. Beal, James A. Coriden and Thomas J. Green, eds., *op.cit.*, p.784).

21) Cf. Fillippo Iannone, *op.cit.*, pp.35-38.

22) Cf. Priamo Etzi, *op.cit.*, pp.29-31.

23) 회의를 통해 소집되기 위해 여러 사안에 따라 그리고 헛수를 변경해가며 1236년부터 최소한 선서 1년 차가 되어야 선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1259년부터는 최소 선서 2년 차만 가능했으며 1271년부터는 4년 차부터 가능했다. 하지만 큰 가치의 동산과 부동산의 매입과 처분에 대해서는 보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선서자들이 투표권을 가졌다(Pietro Lippini, *La vita quotidiana di un convento medievale(Gli ambienti, le regole, l'orario e le mansioni dei Frati Domenicani del tredicesimo secolo)*, Edizioni Studio Domenicano, Bologna, 2003, p.320); 데빠올리스는 도미니코회의 총회 인원 구성에 대한 흐름을 다음과 같이 짧게 평가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위적 형태로 중앙집권화가 강조되고 대신 총회에서 표현된 참여가 감소되었다. 그 와중에 총회에서 직무의 효력으로 혹은 법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우세하였다”(Cf. Velasio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ed., Vincenzo Mosca, Venezia, Marcianum press, 2015, p.385).

구성원의 참여 정도나 책임을 달리하였다는 중요하고 독특한 면을 시사한다.

한편 도미니코회 전통에서 정규 총회와도 구별되는 '최대 총회'(capitulum generalissimum)의 구성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다수 관구 혹은 사부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 총회를 요청하고 그들이 속한 관구들은 그들 요청의 이유를 제시하면서부터 회의 개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 이 회의에 참여하는 이들은 관구 수도원장들과 각 관구 회의에서 이 목적으로 선출된 두 명의 형제들이다. 이러한 소집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 2년 전에 미리 대상자들에게 통보된다.²⁴⁾ 이 회의에 의해 부과된 입법문은 세 번의 총회에서 부과되고 확인된 결정처럼 즉시 회헌의 힘을 얻었다.²⁵⁾

도미니코회의 총회는 교황의 권위를 빌어 개최의 주기성을 변화시키기도 했고, 개최의 연기도 이뤄졌으며, 여행의 경비와 정치적 불안정 등 현실적 문제를 통해 주기가 변화되기도 하였다.²⁶⁾ 이러한 1-3년의 주기성이 16세기까지 이어지다 1625년 우르바노(Urbano) 8세가 관구들과 다른 관구들 수사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6년 주기로 승인하였다.²⁷⁾ 결과적으로 비오 12세는 12년의 총사부

24) Pietro Lippini, *op.cit.*, p.405.

25) WALZ A.M., *Compendium Historiae Ordinis Praedicatorum*, p.103을 Filippo Iannone, *op.cit.*, p.36에서 재인용. 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알르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관구의 다수 회일, 상급 장상 혹은 회의 사부만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특별한 총회는 오직 두 번만 거행된 것으로 기록된다. 첫째는 1228년의 것이고 둘째는 1236년에 파리에서 총사부 조르다노 디 사소니아(Giordano di Sassonia)에 의해 거행되었다'(Walz A.M., *op.cit.*, p.104)를 Filippo Iannone, *op.cit.*, pp.36-37에서 재인용).

26) 매년 개최되었던 총회는 1370년의 발렌스(Valence)의 회의와 1372년 툴루즈(Toulouse)의 회의에서 2년 간격으로 고정되었다. 이후 매 2년 혹은 3년 역시 개최될 수 있는 형태가 인정되고 1년 혹은 2년도 개최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툴루즈 회의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여행의 어려움, 정치적 불안, 회의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이 세 제안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했다(Filippo Iannone, *op.cit.*, p.37).

27) 그런데 '1679년 이노첸조 11세는 3년 간격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1694년 로마의 회의는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고려하여 교황에게 6년마다 다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얻어냈다'(Cf. Walz A.M., *op.cit.*, p.353; MORTIER P., *Histoire des Maîtres Généraux de l'Ordre des Frères Prêcheurs*, 6, 1913, 207-208; M.O.P.H., 13,

의 직무 기간을 고정했음에도 불구하고²⁸⁾ 1862년 4월 4일의 교령으로 회의의 어떤 주기성도 변경하지는 못했다.²⁹⁾

도미니코회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프란치스코회를 살펴보면, 설립자 프란치스코는 형제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구 봉사자들 (*ministri*)이 먼저 적어도 매년 회원들과 모이고 이후 이 봉사자들 전체가 3년마다 모이게 했다. 그런데 성 프란치스코의 “날인되지 않은”(non bollata)이라 불리는 ‘1221년의 규칙’³⁰⁾은 지역분포가 모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과 그것을 고려하여 총회 구성 주기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³¹⁾ 형제들의 회의를 통해 관구 봉사자들 및 다른 직무의 임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223년까지 법제화되지 않고 총봉사자(*Ministro generale*)가 주도하는 중앙집권화가 이뤄졌다.³²⁾ 1260년 나르본(Narbonne)의 회헌 이후로 총회가 개최되는 양식은 성 보나벤투라(*St. Bonaventure*)가 규정한 양식으로 유지되었다. 관구 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와 고문(*Custodie un Discreto*)의 대표가 있어서, 그 결과 각 관구는 3명의 총회의 대리인들을 갖곤 하였다.³³⁾ 또한 총회에서 여러 문제를 위원회를 통해 다루는 결정자(*definitori*)들이 지명되었다. 그들은 총회 결정자들(*Definitori del Capitolo*)이라 불렀는데, 그들의 권한이 총회의 종결로 중단되곤 하였다. 1467년 만토바(Mantova) 총

p. 258을 Fillippo Iannone, *op.cit.*, p.37에서 재인용).

28) Cf. MORTIER P., *op.cit.*, p.7, pp.493-494를 Fillippo Iannone, *op.cit.*, p.37에서 재인용.

29) Cf. *Ibid.*, p.37.

30) Cf. Priamo Etzi, *op.cit.*, p.31.

31) “모든 봉사자들은 매년 [...]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지역과 알프스 너머의 모든 봉사자들은 3년에 한 번,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은 일 년에 한 번 [...] 회의에 모인다”(FRANCESCO D'ASSISI, *Regola non bollata* (1221), cap. XVIII, 50, in: *Fonti Francescane, Scritti e biografie di san Francesco d'Assisi. Cronache e altre testimonianze del I secolo francescano. Scritti e biografie di santa Chiara d'Assisi*, Ed. Messaggero, Padova 1983, p. 114를 Priamo Etzi, *op.cit.*, p.32에서 재인용).

32) Cfr. G. RACCA, *La Regola dei Frati Minori*, S. Maria degli Angeli-Assisi, ed. Porziuncola, 1986, 137를 Priamo Etzi, *op.cit.*, p.32에서 재인용.

33) Cf. *Constitutiones generales Narbonenses* (a. 1260), Rubr. Xc XI, in: *BONAVENTURAE* (S.), *Opera Omnia*, 8, Ad Claras Aquas, cd. PP. Collegii a S. Bonaventura, 1898, pp.461-463을 Priamo Etzi, *op.cit.*, p.33에서 재인용.

회의 『규칙』(Osservanza)이라는 정관은 프란치스코회의 개혁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정관에 모든 관구 대리들(고유 수도자 장상들)로 총회의 결정자들(definitori)과 총회에 참가하는 개별 대리의 고문들(Discreti) 혹은 대리자들(Province dell'osservanza) 언급이 사라진다. 대신 1490년 이래로 개별 회의에서 선출된 것으로 보이는 3~4명의 결정자의 이름이 문서에 기록되어있다. 1501년의 문서에서는 더 이상, 총회의 결정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금도 작은 형제의 개별 가족에게만 있는 것처럼, 오직 총결정인들에 대해서만 언급했다.³⁴⁾ '1501년 4월 7일 교황 알렉산더 6세에 의해 승인된 "알렉산드리아"(Alessandrine)라고 불리는 1500년의 총회헌'³⁵⁾에 따르면 "개별 사안으로 총회가 항상 소집될 수 없음으로"³⁶⁾ 몇몇 평의회 의원들 혹은 협조자들이 특별한 문제에 대한 검사를 통해 총회의 동의로 총봉사자로 선발되는 것이 인정되어야 했다.³⁷⁾

마지막으로 가르멜회의 총회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르멜회에서는 몇몇 설교자 회의 회원들이 자문위원 혹은 교정자들로 참여한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르멜, 세르비티(Serviti), 메르체다리(Mercedari)의 회원들이 설교자들의 어떤 규정들을 도입하였고, 특히 그것들로부터 총회의 작용원리를 찾아내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³⁸⁾

종합해보면 활동 수도회 특징은 사도직 논의와 회의 일치의 수단으로 총회가 시작되었다. 또한 공동체 크기에 따른 등급별 총회 구성을 달리하는 새로운 구조도 등장하였다. 프란치스코 회의 경우

34) Cf. Priamo Etzi, *op.cit.*, pp.33~34.

35) Cf. E. WAGNER, *Historia Constitutionum Ordinis Fratrum Minorum, Romae — Würzburg*, ed. H. Stürtz, 1954, p.60을 Priamo Etzi, *op.cit.*, p.34에서 재인용.

36) Cf. *Constitutiones generales Minorum Alexandrinae (a 1500)*, cap. VIII, in: *Chronologia historico-legalis Seraphici Ordinis Fratrum Minorum Sancti Patris Francisci*, tomo I, colligebat P. Michael Angelus a Neapoli, Neapoli, ex Typographia C. Cavalli, 1650, 148~208을 Priamo Etzi, *op.cit.*, p.34에서 재인용.

37) *Ibid.*

38) Cf. MANDONNET P., *Saint Dominique. L'Idée, l'Homme et la Oeuvre*, 2, 1938, pp.249~265를 Fillippo Iannone, *op.cit.*, p.40에서 재인용.

관구 차원의 회의를 통해 수립된 의견이 총회에서 관구 봉사자들을 통해 모였다. 총회를 소집하는 이가 총장(총사부)이 아니라 관구장들의 회합이나 결정자들의 회합이었다는 점, 그리고 일반 회원도 가능했다는 점이 특별하다. 그리고 오늘날 총회 대의원과 같은 참여의 대표성에 많은 변화의 역사를 거친다. 최대 총회가 있었다는 점과 회의에 참여하는 회원들도 서원 연차에 따라 총회 구성에 권한을 달리하며 참여하는 특징도 보여준다. 또한 총회의 시간적 구성 즉, 주기성은 전체의 일치와 유익이라는 가치보다는 여행 경비나 정치적 상황 등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적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르멜회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라는 특이점도 보여주었다. 회를 설립한 도미니코나 프란치스코는 회의를 통해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기를 원했지만, 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지역분포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회의를 간소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3. 14세기부터 1917년 법전까지 총회의 발전

13세기부터 총회의 소집이 모든 수도회의 기본법으로 인정되고 교황에 의해 총회가 부과되거나 승인되었다.³⁹⁾ 그리고 트렌트 공의회(1545~1563)는 총회 개최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총회의 주기와 단위의 구성도 구체화하였다. 즉, 3년마다 총 회합(*concilio generale*)이 연합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 관구 안에 수도승원 숫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수도승원들을 연합하여 거기서 방문자들을 선출하게 하였다. 17세기부터 수도회들 내에서 중앙집권화 과정이 강화되면서 드러난 위계적(*gerarcologica*) 구조는 총

39) 올리베타노(Olivetani) 사제들은 1319년에 제1차 총회를 개최했고 교황 베네딕토 12세는 1336년 6월 20일 교도권(*Summi Magistri*) 날인으로 정기적인 형태의 총회 개최를 부과했다(Cf. Filippo Iannone, *op.cit.*, p.40). 그리고 ‘이노첸조 8세는 발람브로사나(Vallambrosana) 회의 총회 개최를 승인했다’(Cf. ROTHENHAEUSLER M., *De Monachismo occidentali Benedictino*, in *Acta et Documenta Congressus Generalis de Statibus Perfectionis, Romae 26.XI-8XII. 1950*, 1, 490을 Filippo Iannone, *op.cit.*, p.40에서 재인용).

회 위원들의 모임과 회의 통치에 모든 수도자의 참여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총회에서 특권층 혹은 당연직 위원들이 주도하였고 회헌 수정과 선출에서 회원들의 임무가 제한되었다. 이는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이 총회를 크게 불신하도록 하였다. 단 순서원 회의 여자 회들 또한 이러한 통치의 전형적인 형태를 형성하면서 19세기 이후, 20세기 초에 전형적 수도회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서 총원장 수녀가 완전한 권한을 갖고 총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것이 법제화되었다.⁴⁰⁾ 이는 1917년 법전이 공포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⁴¹⁾ 이 시기는 총회를 총원장이나 당연직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총회가 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랑 안에 진정한 일치와 표징이 되지 못했다. 총회 구성이 역사 안에서 일시적으로 퇴보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II. 보편법 법제화의 역사 안에서의 특징

1917년 법전이 공포되기 전까지 공의회의 규정들과 교황들의 법이 역사를 거듭하며 추가되었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포괄적으로 교회의 법들이 교령집과 법령집들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법률 활용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기

40) Fillippo Iannone, *op.cit.*, pp.41~44; 이와 같은 주제는 '1900년 12월 8일의 레오 13세의 『사도헌장』(Conditae a Christo)과 6개월 후 발표된 1901년 6월 28일 주교와 의전 사제단 성(S. Congregazione dei Vescovi e Regolari)의 문서에서 이어지는데, 여기서 총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들이 상세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총회 소집 시기, 방법, 장소 (nn.205~212),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는 수녀(nn.213~223),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선거. 주재자, 개표 입회원들, 총회 비서(nn.224~230), 총장 수녀의 선출과 재선 (nn.231~238), 평의회 회원, 총비서, 총 재무 담당의 선출(nn.239~245), 총회는 선출 총회와 간접 총회로 구별된다(참조: nn.205~208). 후자는 의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참조: n.209).'(Congregatio Episcoporum et Regularium, «Normae secundum quas S. Congregatio Episcoporum et Regularium procedere solet in approbandis novis institutis votorum simplicium», Typis S.C. de Propaganda Fide, 1901, Roma, nn. 205~223, 224~245를 Fillippo Iannone, *op.cit.*, pp.44~45에서 재인용).

41) Fillippo Iannone, *op.cit.*, p.45.

전(1869~1870)에 비오 9세의 문제 제기와 공의회 이후 1904년 비오 10세의 지시로 교회법전의 긴 정리 작업에 들어가 1917년 베네딕토 15세가 최초의 성문화 된 보편교회의 법전을 반포하였다.⁴²⁾

1. 1917년 법전과 그 이후

총회의 긴 역사에 비해 1917년 법전의 총회 규정은 아주 빈약하다. 제501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장상들과 회의는 회현과 공법(ius commune)의 규정에 따라서 종속자(subditos)들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다. 또한 면속성직자수도회에 있어서는 외적 및 내적 법정에 관한 교회의 재치권을 갖는다.”⁴³⁾ 이에 대해 데빠올리스는 회현과 공통법(diritto comune)에 따라 회의의 구성에서 당연직 구성원과 선출된 구성원 사이의 관계와 대표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았다.⁴⁴⁾ 사실 이러한 입법은 총회의 풍요로운 역사 가운데 특히 총회 구성에 대한 참된 의미나 형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권주의적 색채로 총회의 권한만을 매우 단순하게 언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917년 법전 반포 이후 교회는 수도자들에 관한 문헌을 지속해서 발령했다. 그 가운데 총회의 구성과 관련된 1921년 7월 2일 답서 『교구수도회에서 총회 개최에 대한 의문』에서 총회 개최지가 다른 경우 총원이 있는 곳의 법을 적용하고 선거는 총회가 이루어진 곳의 법을 따르도록 답한다.⁴⁵⁾ 그 밖에도 1942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42) Cf. G.J. Woodall, *A Passion for Justice (An Introductory Guide to the Code of Canon Law)*, Herefordshire, Gracewing, 2011, pp.20~30.

43) 1917년 『교회법전』 제501조 제1항(이하 1917년 『교회법전』은 CIC 17로 표기). Benedictus XV, *Codex Iuris Canonici*: AAS 9 Pars II(1917), in coll. Dominicus Andrés Gutiérrez, *Leges Ecclesiae* 7, Roma, Ediucla, 1994. 안드레스는 이 조항의 법원으로 C. 6, X, de statu monachorum et canonicorum regularium, III, 35; Conc. Trident., sess. XXV, de regularibus, c. 1; Leo XIII, const. “Conditae a Christo”, 8 dec. 1900, §2, n. 1를 참고하도록 한다(Benedictus XV, *Codex Iuris Canonici*: AAS 9 Pars II(1917), in coll. Dominicus Andrés Gutiérrez, *Leges Ecclesiae* 7~5165, Roma, Ediucla, 1994, 9371).

44) Velasio de Paolis, *op.cit.*, p.385.

45) 교구설립수녀회가 여러 교구로 퍼져 있는 가운데 수도회 본원(domus princeps)은

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청한 청원에 그것을 허가하는 은전⁴⁶⁾과 1943년 프란치스코회의 총회 연기 청원에 은사가 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이렇게 역사적으로 총회 구성은 비상시에 연기가 필요하면 회헌을 승인한 관할 권위에 허가를 청하여야 한다는 점과 또한 그것이 허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

‘공의회 초기 수도회의 쇄신을 다루지만, 이는 장상이 주도하는 것으로 국한되었고 총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⁴⁸⁾ ‘점차 쇄신의 과정이 총장 개인의 권한에서 합의체적 권한(총회)으로 부여되도록 발전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65년 9월 16일에 쇄신의 과정이 합의체적 권한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⁴⁹⁾ 다음 해에는 한발 더 나아가 공의회 교령들의 이행에 관한 자의교서 『거룩한 교회』가 주어지면서 수도생활 쇄신과 적응의 구체화를 위한 지

총회가 열리는 곳의 설정된 지역법(ius statuendi locum)을 따라야 하는지 혹은 오히려 총원장 수녀에 따라(총원이 있는 곳)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한다. 교회는 선거와 관련된 1917년 법전 제162조와 제507조에 따라 후자가 맞는다고 답한다. 두 번째 질문도 1917년 법전 제506조 제4항을 근거로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하게 총원장 수녀 선출에서 주재, 추인 그리고 거부가 선거가 이루어진 곳의 직권자에게 권한이 있다는 답을 내린다(Cf. SC Religiosorum, Resp. “Dubia de celebratione capituli generalis in Congregationibus Iuris Dioecesanis”, in *AAS*. 13(1921), 481~482).

46) Cf. SC Religiosorum, indultum, “Facultas datur differendi capitulum generale Ord. Carm. Discalc. usque ad finem belli”, in OCHOA, *Leges Ecclesiae*, (anni 1942~1958), 2~1724, col. 2153.

47) Cf. SC Religiosorum, indultum, “Facultas datur differendi capitulum generale Ord. Carm. Discalc. usque ad finem belli”, in OCHOA, *Leges Ecclesiae*, (anni 1942~1958), 2~1724, col. 2153; SC Religiosorum, indultum, “Tempus celebrationis capituli generalis O.F.M. Conv. iterum prorogatur ad annum”, in OCHOA, *Leges Ecclesiae* (anni 1942~1958), 2~1735, col. 2168.

48) Cf.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Oecumenici Vaticani II, 3~14, periodus III, pars VII: Congregationes generales CXIX~CXXII, 762를 Fillippo Iannone, *op.cit.*, 49에서 재인용.

49) Cf.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Oecumenici Vaticani II, 4, periodus IV, pars III: Congregationes generales CXXXVIII~CXLV, 512~528을 Fillippo Iannone, *op.cit.*, p.49에서 재인용.

침 속에 교회가 수도회들에 특별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즉, 총회 구성에 있어서 교회를 통한 예외적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다.⁵⁰⁾ 기간의 구성 또한 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첫째는 특별 총회 기간을 나누는 것에서 그사이의 공백에 기간 구성의 제한을 두는 것이다.⁵¹⁾ 둘째는 특별 총회가 중요한 시도를 하는 경우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연장 기간 구성의 제한이다.⁵²⁾ 이렇게 특별총회는 그 기간의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과 함께 특별한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과거, 공의회나 교황들의 예와 달리 교황 바오로 6세의 이러한 세심한 결정은 역사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로 보인다. 루이스와 몇몇 학자들은 이 특별총회에 관해 특별한 목적을 위한 구성이라는 특징을 간명하게 파악하여 제시한다. 즉, “각 회에서 적절한 쇄신을 장려하기 위해 [...] 특별 총회가 [...] 모일 것이다”⁵³⁾ 라는 명목이다. 다른 한편 기존 총회와 달리 특별 총회의 권한에서 오는 총회 회기의 분할과 연장에 관하여 염두에 둘 문제는 기간이 분할될 때 처음 회기에 참여한 구성원의 권한이 이어지는 총회에 지속하여야 한다는 점이다.⁵⁴⁾ 여기서 구성과 권한의 연관성 안에서 법적 효력들을 고려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총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책임성과 공동합의성 및 참여의 원리로 모든 회원이 총회 구성에 연결되는 구조를 고려하도록 촉구한다.⁵⁵⁾ 공의회 교령 공포 4년 후 수도회와 재속회 성은 훈령 『성

50) “각 수도회의 쇄신과 적응을 촉진하고자 2년이나 길어도 3년 안에는 통상적인(정기, *ordinarium*) 혹은 비통상적인(*extraordinarium*) 특별총회(*speciale Capitulum generale*)를 소집하여야 한다”(『기록한 교회』 II. 3항).

51) “총회가 비밀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 이 총회는 두 번에 걸쳐 소집할 수 있는데(그 두 개회 사이의) 공백 기간이 1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기록한 교회』 II. 3항).

52)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법(*ius commune*)에 어긋나는 시도들(회헌 변경)은 적절한 시기에 성좌로부터 허가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 시도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다음 총회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이어질(정기) 총회 이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기록한 교회』 II. 6항).

53) 『기록한 교회』 II. 3항.

54) Cf. Filippo Iannone, *op.cit.*, pp.51-53.

55) 총회를 통해 쇄신과 적응을 이루고 회 전체의 운명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모든 회원들의 협력 없이는(*nisi cooperantibus omnibus sodalibus*)”과 “회원들과 적절한

직수도회들(Clericalia instituta)』을 통해 평직 수사들이 장상직무를 맡는 것을 제외하고,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허가하면서 참가와 공동책임성이 총회에 널리 반영되는 구성상의 특징을 제시하였다.⁵⁶⁾ 또한, 1972년 7월 10일의 『Par une lettre sur les Actes du Chapitre général spécial』이라는 순회연람(circolare) 편지에서도 총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회원들이 총회의 진행에 협력하고 적절하게 대표되도록 채택되는 것을 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체험의 평가를 통해 유기서원자의 피선거권은 배제하였다.⁵⁷⁾

3. 1983년 보편 교회법전의 입법과정

총회를 다루는 1983년 법전 제631조의 입법 과정에서 전안 제16조는 총회 구성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었다.⁵⁸⁾ 먼저 제2항에서 ‘누구나’(quilibet)라는 표현을 통해 총회의 참여를 모든 회원들에게 열어두는 입법의 특별한 의도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계층적 차별의 표현과 달리 ‘회원들’(sodalis)이라는 단어로 총회 구

방법으로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sodales suos apto modo consulant et audiant)”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참조: 『수도 생활 교령』 4항). 그리고 “회의들은 [...] 공동체 전체의 선의를 위한 모든 회원의 참가와 관심을 드러내어야 한다”(참조: 『수도 생활 교령』 14항)는 원론적 제시도 참고할 수 있다.

56) CRSI, “decree clericalia instituta”, 27, Nov. 1969, in *AAS*. 61(1969) 740. 엘리자베스는 이 교령이 있기 전에 이미 프란치스코회에서 성좌의 답서를 통해 평의회 회원이 되도록 평수사들의 피선거권이 인정된 사실을 전한다(CRSI, rescript to the OFM Procurator General[private], 7 February 1969, prot. no. 11897/69, in Ochoa, *Leges Ecclesiae*, 4, col. 3714를 Elizabeth M. Cotter, *The General Chapter in a Religious Institute(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BVM Loreto Branch)*, New York, Peter Lang, 2008. p.86 각주 59에서 재인용).

57) Filippo Iannone, *op.cit.*, p.56.

58) “2항: 어느 회든지 고유법에 정해진 규범에 따라 하위등급의 회의(관구, 지구 등)와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어느 회원이든지(quilibet sodalis) 자신의 제안들(proposita)과 의견들(suggestiones)을 총회에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3항. 각 회에서 고유법은 사업에 대해 다뤄야 할 때와 선거에 대해서 완수해야 할 때 총회 거행의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총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어떠한 남용과 특히 선거권의 처리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것만큼 자신을 위해서도 주의해야 한다.”(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 canonici recognoscendo, *Communicationes*, 12, 1981. p.170).

성원의 평등을 강조하는 새 교회론의 영향을 받은 변화를 볼 수 있다.⁵⁹⁾ 제3항은 총회의 진행의 구성에 대해 고유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은 회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몬시뇰 차관(Mons. Segretario)은 전안의 수정과정에서 총회의 구성에 현행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⁶⁰⁾ “총회는 [...] 다양성 안에서 그의 참된 일치가 되기 위하여 회를 대표하면서 형성되어야 한다 [...]”⁶¹⁾ 2항에 대한 몬시뇰 차관의 제안에 대해 다음 문장이 승인되는데 거기에는 총회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2항: 회의의 구성과 범위가 회헌에 정해져야 한다. 더 나아가 고유법은 회의의 거행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순서, 특별히 선출들과 안건들의 처리 방식들(*rerum agendarum rationes*)까지 정해야 한다.”⁶²⁾ 3항 역시 청원과 제안을 보내는 회원들의 참여 구성을 다루는데(8명이 동의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항: 고유법에 정해진 규범들에 따라 관구와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회원들도 자신의 청원(*optata sua*)과 제안(*suggestiones*)을 총회에 자유롭게(*libere*) 보낼 수 있다.”⁶³⁾ 이상과 같이 1983년 법전의 입법 과정

59) “어느 회원이든지”(quilibet sodalis)라고 표현하는데, “누구나”(quilibet)라는 미한정 대명사를 사용하여 참여하는 대상이 모두에게 열려있음을 더욱 강조하려는 입법의 의도가 보인다. 또한 ‘sodalis’라는 단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사회의 교회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 입법에서는 ‘예속자’(subiectus) 혹은 위에 언급한 1917년 법전 제501조는 ‘종속자’(subditus)라는 단어로 회원을 표현했다. ‘sodalis’는 ‘동료’ ‘친구’ ‘회원’ ‘단원’ 등의 의미를 지니는 명사로 복음적 표현인 ‘친구’(요한 15, 15 참조) 혹은 공의회 교회관에 등장한 ‘평등’에 준하는 적절한 단어 선택이며 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평등한 참여의 의미와 공동책임성의 원리도 끌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참여는 서원하지 않은 지원자들의 참여에도 열려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0) Cf. *Ibid.*

61) 오랜 토론 이후 다음의 문장들이 승인되었다. “1항: [...] 총회는 모든 회를 대표하면서 애덕에 참된 일치의 표지가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 canonici recognoscendo, *op.cit.*, pp.170-171).

62) 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 canonici recognoscendo, *op.cit.*, p.171.

63) 같은 책, 172. 여기서 ‘청원[자신이 원하는 것들](*optata sua*)’과 제안들(*suggestiones*)’을 총회에 ‘자유롭게’(libere)라고 하여 ‘원하는 것들’을 ‘제안들’과 구분하여 회원 개인들의 다양한 원의를 총회에 자유롭게 표출하는 열린 토론의 장을 지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서 총회의 구성은 전 회원에게 향하고 있고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책임성과 공동합의성 및 참여의 원리를 반영하면서 수도권 전통의 장점들을 재도입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Ⅲ. 역사적 특징으로 비취본 한국 내 수도권들의 총회 구성에 관한 규정들

지금까지 살펴본 총회 구성의 법제사는 1983년 법전 입법과 함께 하나의 조항으로 수렴된다. 입법자는 위에서 다룬 긴 역사적 특징과 의미들을 법 조항에 모두 담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총회는 “회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 안에 진정한 일치의 표징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⁶⁴⁾고만 축약하여 표현함으로써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와 회의 세습자산에 따라 총회의 구성을 회의 고유법으로 규정하도록 열어둔다.⁶⁵⁾ 여기서 회들이 위에서 살펴본 역사적 과정을 통해 드러난 총회 구성의 특징을 자기 것으로 옮겨 담아냈는지 혹은 자신들의 전통을 따랐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고 본고에서 다루기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광범위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총회 구성의 특징을 전제로 한국 내 수도권들이 총회의 구성에 관해 고유법으로 규정한 특징을 살펴보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3월 현재 여자장상연합회에 가입된 수도권회는 108개이고 준회원회가 1개이며 남자장상협의회에 가입한 수도권회는 41개이다. 이 중에서 그 특징 파악이 비교적 유연한 일부 회의 고유법을 택하여 고찰해보겠다.

64) 교회법 제631조 제1항.

65) 참조: 교회법 제631조 제2-3항.

1. 성좌설립수도회들⁶⁶⁾

성좌설립수도회들의 총회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들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회 구분	총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들
A회	총회 주제에 따른 필요한 대의원의 자질과 유기서원자 대표 비율과 권한, 대의원 선출 방법, ⁶⁷⁾ 관구 총회의 시기, 소집, 목적과 구성, 구성에서 당연직으로 정해지는 이들과 선출 대의원 비율의 큰 틀, 그 안에서 구성의 유동적 변화, 열린 총회(Open Chapter)의 가능성
B회	총회 소집, 주기, 큰 총 ⁶⁸⁾ 의 유고 시 총회 소집, 중대 사유 발생 시 임시 총회 소집, 새 큰 총과 참사들의 선출 이후, 이전 큰 총과 참사들의 총회 구성 및 정족수, 선거 제도의 구성에 ‘찬거’(교회법 제180~183조), 총회 밖의 선출자, 총회의 의장과 선거의 주재, 참관인, 전문가 임명 및 초대, 대의원들의 수는 당연직 의원들의 수보다 많도록 하는 규정
C회	총회와 관구회의 개최 주기, 개최의 앞당김과 연기 및 총회 소집, 총회 주재자와 그 대체, 대의원(당연직과 최소한 동수여야 한다), 총회에 참석하는 이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인들의 인준, 총회 밖의 선거의 구성에 대한 규정
D회	선거의 폭넓은 참가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는 이들, 사업 보고자의 소집, 총회에 관여하지 않는 형제들의 다른 참여 방법(서면 청원, 질의, 제안 제출), 총회에서 만들어진 의사 진행과 결정은 의사록에 기록과 보존 및 서명하는 것
E회	총회 소집, 주관, 주기와 총원장 유고 시 총회 및 임시 총회 소집, 총회 개최 유효 구성원 및 개최 선언, 새 총원장을 선출할 때는 이 목적으로 선출된 선거 위원장의 주관, 상세한 정기총회의 구성(보고 회의, 선거 회의, 의결 회의) 구분, 선거 회의 일정과 순서 구성, 회원들의 총회소집 요구를 총원장에게 제시할 수

66) 참조: 아우구스티노수도회, 『회헌』, 2013, 제284~286조, 제293조; 살레시오회, 『회헌』, 1984, 제111~117조, 제119~120조, 제123~125조, 제129조, 제132조, 제134조, 제140~141조, 제150~151조, 제153~154조, 제162~163조, 제165조, 제143조, 제149~152조, 제172~173조; 글라렛선교수도회, 『회헌』 2000, 제125조, 제138조, 제141~142조, 제147조, 제154조, 제156조; 글라렛선교수도회, 『규칙』, 1999, 제290조, 제303조, 제330~332조, 제495조; 글라렛선교수도회, 『지침서』, 1999, 제501~502조, 제505~511조, 제513~516조; 마리아회, 『생활규칙(회헌)』, 1981, 제94~96조, 제99조, 제104조, 제7.26조, 제7.27조, 제7.30조, 제7.31조, 제7.33조, 제7.34조, 제7.35조, 제7.36조, 제7.38조, 제7.41조, 제7.42조, 제7.78조, 제7.79조, 제7.80조, 제7.84조, 제7.91조, 제7.96조; 사랑의 선교수사회, 『회헌과 규칙서』, 2003, 제17.2~17.3조, 제17.5조, 제17.9조, 제17.12~17.13조, 제17.15조, 제17.17조;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수도회, 『회칙』, 2009, 회헌 제80조, 제84~85조, 제91~93조, 제95조, 회칙 제98~101조, 제106조, 제118조;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회헌』, 2001, 제98~102조, 제104조, 제108~109조;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회칙』, 2001, 제174~182, 제184조, 제198조. 제203~219조, 제220~222조;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회헌 회칙』, 2017, 회헌 제117조, 제122조, 회칙 제117~122조 제128조.

	<p>있는 기준, 총회의 인원 구성에서 대의원 구성의 의미와 대표성의 의미, 비율 및 선서, 유기서원자의 선거권, 총회 임원 및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구성원 그리고 역할, 총회 진행 구성, 폐회 절차, 결과 통보(사도좌, 회원들) 및 의건 수렴과정, 마무리 회의록 서명과 폐회 선언, 총회에서 선출된 총평의원이 대의원이 아닌 경우 그 즉시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며 대의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는 것</p>
F회	<p>총회의 주된 목적, 장소, 총회 개최일을 표시하여 총회 소집과 개회 선언, 총회 준비위원 임명, 총회 의사록을 공포, 임시총회의 소집,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 참관자(옵서버)로 회원 또는 외부인들을 총회에 투표권 없이 초대, 그들의 구체적 참가형태,⁶⁹⁾ '총회 준비위원회'와 총회 운영위원회 구성원, 선출 대의원의 비율, 사회자와 임원, 총회 이후 서류처리와 예식</p>
G회	<p>총회와 임시총회 소집 규정과 선거인단 피선거권을 갖는 이 등의 구성, 임시총회의 권한 범위, 총회의 개최 장소 및 날짜 결정과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 총장이 중병, 사망, 은퇴 혹은 해임될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조건, 선출 위원 비율(선출 위원은 당연직 위원보다 최소한 1명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 준비 위원회 설치와 그 역할, 세계 총회 참석 당연직과 선출된 대의원들, 유기서원기의 회원들, 성직수사와 평수사의 공동체 인원수 비례로 대의원 선출 기준, 총회 대의원이 아닌 수도자의 선출인 경우 그 획득되는 권한, 대의원의 권한 포기과 대리 지명, 선출 대의원의 교체 시 조치, 당연직 회원 교체 시 방법, 관구장의 관구총회 주재와 그 권리 포기에 따른 사회자 선출, 관구 총회 소집 규정과 함께 관구 보조자의 수와 책임을 결정하는 규정</p>
H회	<p>총회 소집, 개최를 앞당기거나 늦춤, 정기 총회의 개최 전 일정 등급 공동체 설립과 사법적 지위 변경이 불가함, 총원장 유고 시 혹은 퇴진시 필요한 경우 총회 소집,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통고 방식 및 선거인단 구성, 분야별 전문가와 사업 활동들과 직무들의 대표자들의 선출, 초대 객원 구성과 역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이 당선된 경우</p>
I회	<p>총회 소집 개막 선언, 초기 회기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총장 공석에 총회 소집과 회의 정족수, 총회에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자, 관구 총회소집 주기, 총회 준비위원회와 총회 운영위원장과 총회 전문위원 발족 및 역할, 공동체 인원수에 따른 대의원 수, 선거 의사록을 특별위원회가 심사, 의장과 사회자 및 그들의 의장단 구성, 총회 회합에 의장의 허가 없이는 결석할 수 없음, 총회 작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시에 상세한 정보를 주는 위원회와 그 방법, 총장과 총회 전체회의는 전문가 또는 옵서버로 투표권이 없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총회에 초빙, 옵서버들은 위원회나 전체회의에서 발언, 총회 폐막 선언, 당선된 대의원들이 불참 시 대체자 선출 방식</p>

이상의 표에서와 같이 성좌설립수도회들의 총회의 구성에 관한

67) 대의원 선출 방법과 임기를 규정한다. 유기서원자 대표의 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들은 토의에는 참여하되 투표권은 없다.

68) 총원장을 의미함.

69) 그룹 토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지만, 전문가는 특정 주제를 다룰 때만 참석하고 요청이 있을 때만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항들을 볼 수 있다. E회, G회, I회가 총회 구성에 관한 많은 조항들을 취하고 있다.

2. 교구설립수도회들⁷⁰⁾

회 구분	총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들
가회	<p>총원장 공석 시 혹은 중대 이유 시 소집, 구성원과 정족수, 의결 구성원 진행(개회, 보고 회의, 안건 회의, 선거 회의, 폐회 순) 및 폐회 예시, 3개월 이상 앞당겨지거나 늦춰져야 할 때의 절차, 총회 개최일(기도로 준비, 피정, 침묵) 구성, 총원장 선출 시 선출 방법, 선출 후 예시,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원과 임명, 역할, 총회를 위한 교육과 그 내용, 주제 및 의안 제출 및 그 마감 기한, 총회 대의원 사전 모임과 총회에서 다룰 의안 결정, 총회 개최 6개월 전 총회 공고(일자, 장소 알람, 특별기도 요청) 총회의 인원 구성, 직책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성 인원과 비율, 선출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총회 대의원 선출과 구체적 기간 및 방법, 임무, 대의원 불참 시 대체 방법 및 총회 밖의 회원의 선출과 대의원 권한 취득, 대의원 사전 모임 및 안건 연구 등의 과제, 의견을 재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대의원들을 지역에 파견하는 것과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적절한 시기에 모든 회원에게 알리는 것, 총원장의 총회에 보고서 제출 규정과 임시총회소집, 총회 개최 일자와 장소 및 준비위원 임명, 대의원이 아닌 회원을 총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일, 다른 직무 자의 서류 준비와 보고서 제출, 관구 회의의 구성과 대의원 비율, 관구 회의 진행의 구분과 그 진행자, 보고 회의, 선거 회의, 안건 회의 그리고 종결 선언과 결정사항에 대한 선포, 대의원이 아닌 회원이 관구 평의원으로 선출되면 대의원의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과 관구 회의의 구체적 목적과 기능</p>
나회	<p>제631조의 총회의 일반 개념을 인용하면서 총회의 구성의 목적을 다룬 문장은 삭제하였다. 개최 시기와 주제 및 일정 선포, 자세한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과 역할, 참사회의 준비책임과 임시총회 개최, 의장, 총회 선포와 관리, 유효참석인원과 당연직의원과 선출 대의원의 구성, 총회 대의원 선출 기간과 방식, 선출에 유기서원자는 선거권만 갖는 것, 총원장이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종신자 전원 참석의 가능성, 안건제출 방식과 안건 채택 방식 및 총회피정, 총원장의 보고서 작성과 총회에 제출, 선거 주재자, 새로 선출된 총원장이 이후 총회 주재, 총회 규정 이외의 세부 사항들은 총회에서 제정 의결하여 적용, 총회 결정 사항의 통보와 전 회원 준수, 투표용지 소각, 비밀준수, 총비서의 회의록 작성 서명, 보관</p>

70) 참조: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 『회헌과 회칙』, 2011, 제34조, 제88~89조, 제91~93조, 제99조, 제109조, 제89~93조, 제102~103조;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회헌과 회칙』, 2016, 제154조, 제155~159조, 제160~164조, 제166~167조;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회헌과 회칙』, 1985, 제118조, 제119조, 제121~122조, 제125~126조, 제134조; 예수성심시녀회, 『회헌(시안)』, 2020, 제124조, 제127~132조, 제142조, 제145~146조, 제148~149조, 제151~153조; 예수성심시녀회, 『회칙(시안)』, 2020, 제146~150조, 제152~157조, 제159~160조, 제163조, 제165~166조, 제169조, 제173~174조, 제176조, 제179~180조.

다회	<p>총회의 소집, 정기총회 주기, 총회의 준비와 회의 진행 규정(보고 회의, 의결 회의, 선거 회의, 폐회 선언 순), 임시총회 개최 조건 및 총회를 앞당기거나 지연, 총원장 유고, 사임, 해임 시 임시 총회 소집, 총원장은 총회 통고(통고 시기, 소집 일시 장소, 의제 알림)와 의견과 안건들을 총회 개최 전 제출, 제출된 안건들을 총회 구성원들에게 전달, 총회 구성원과 참석 의무와 권리 그리고 총회 준비 위원회 임명, 수행과정, 임무, 총회 개최 구성원, 의장의 역할, 개표원, 서기 선출, 총회를 마칠 때 임무들 그리고 총회의 준비와 선거전 거행 예식 및 회의 진행, 새로 선출된 총원장이 선출 후 예식, 선거 상황 기록과 보관 및 총회 후 결과를 알리는 것</p>
라회	<p>총회 소집 주기, 장소, 시간의 공고 및 개최 예식과 회의들의 진행순서, 상제한 투표 방식, 총원장이 공식 시 총회 소집 및 임시 총회 개최 조건과 구성원 및 소집, 총회 준비위원회, 총회 개최 전 준비사항 및 구성과 임시 총회 개최 방법, 대의원의 자격과 역할, 대의원 비율과 선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유기 서약 수녀의 선거권⁷¹⁾, 안건에 대한 전문가 초대 및 총회의 의장, 총원장의 선출 시 주관, 총회의 참석을 강하게 구속 하고 관련 없는 불참을 불허, 진행순서에 대해 총회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총회의 서기의 회의록 보존의무 및 폐회 선언</p>

교구설립수도회들의 총회 구성에 관한 규정들은 앞서 살펴본 성좌설립회에 비해 양적으로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회는 총회 구성과 관련하여 아주 많은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역사적 특징으로 비춰본 국내 수도회들(성좌 및 교구설립)

회들이 규정하고 있는 총회 구성에 관한 현재 규정들은 총회의 소집, 주기, 회원의 일치와 대표성 실현, 참여의 구속력, 참여자 형태와 권한 구성, 회의에 다루지는 내용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이것들을 앞서 살펴본 총회 구성의 역사적 특징과 접목하여 도표로 분류해 본다면 총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더 명료하게 파악하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71) 3년 이상의 유기서원 수녀의 피선거권을 규정한다.

1) 소집

역사적 특징	현재 적용 방식	적용 수도회	비고
교황, 장상의 소집	고유법에 따라 총원장이 주도하는 형태로 적절히 규정	모든 회	보통 총원장이 평의회 등의를 얻고 총회를 소집한다.
도미니코 회에서 회원들의 요청으로 '최대 총회' 소집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성좌설립 E회	
총사부를 폐위시킬 권한을 포함한 특별 총회소집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성좌설립 H회	회원이 총회에서 진행하도록 승인되지 않았다면 총원장 퇴진 사안은 성좌에 청원하여야 한다.
총원장 유고 시 혹은 유사시 임시 총회 소집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성좌설립 B회, E회, G회, I회, F회 교구설립 가회, 다회, 라회	

2) 주기

역사적 특징	현대적 적용	적용 수도회	비고
라테란 공의회 규정과 프란치스코에서 가졌던 3년 주기, 그리고 도미니코회에서 교황의 승인으로 설정된 6년 주기	한국 내 수도회들은 이 범위 내외로 규정		현행법이 총회 주기의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수도회들의 총회 주기가 위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각 수도회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 관례를 따라가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921년 답서와 1942년 관할 권위의 허가로 총회 개최 연기	총회와 관구회의 개최 주기와 개최의 앞당김과 연기를 규정	성좌설립 C회, G회, H회 교구설립의 가회와 다회	회의 자치적인 통치를 통해 불측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3) 회원의 일치와 대표성 실현

역사적 특징	현대적 적용	적용 수도회	비고
17~19세기 보였던 위계적 구조에서 당연직 회원이 총회 참여에 우위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시도로 총회 작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회원들에	성좌설립 수도회 I회	

를 점하고 일반회 원 참여가 제한되 어 광범위한 불신 을 초래	계 적시에 상세한 정보를 주는 위원 회와 그 방법에 관해 규정		
	많은 회가 당연직 위원과 대의원의 비율을 엄하게 조 정하여 모든 회원 의 참여를 높히는 것으로 해결	성좌설립 A회, B 회, C회, E회, F 회, G회, H회, I회 교구설립 가회, 나 회, 라회	회원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총회에서 당연직 위원의 참석이 많아지 면, 일반 회원들의 참 여가 제한되므로 당연 직 위원들의 비율을 제 한하는 방식이 일반적 이다.

4) 참여의 구속력

역사적 특징	현대적 적용	적용 수도회	비고
시토회를 비롯한 수 도승 회와 클루니 수도회가 총회 참여 에 강한 법적 구속 력을 동원하여 대리 자를 통해 참가와 공동책임성을 실현	대의원 불참 시 대체 자를 규정하고 의장 의 허가 없이는 결석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최소한 참석의 의무 를 부여	성좌설립 I회 교구설립 다회, 라회	역사적 특징이 현 수도회들 안에서는 다른 형태로 세분 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의원 권한 포기 와 대리 지명 규정	성좌설립 G회 교구설립 가회	
	총회에 참석하지 않 은 회원들이 선출되 면 바로 총회 위원으 로 참여를 구속	성좌설립 H회, E 회 교구설립 가 회	

5) 참여자 형태와 권한 구성

역사적 특징	현대적 적용	적용 수도회	비고
초기 베네딕토 수도 회에서 모든 회원의 참여 및 1132년 클 루니 수도회의 많은 수도승이 참석하는 열린 총회	열린 총회의 가능성을 열어둠	성좌설립 A회, 교구설립 나회	역사적 특징이 현 수도회들 안에서는 다른 형태로 세분 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총회에 위원이 되지 않은 회원들에게 다른 참여방법을 열어둠	성좌설립 D회	
	의견을 재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대의원 들을 지역에 파견하는 것과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적절한 시기에 모든 회원에게 알림	교구설립 가회	

수도승 전통과 가르멜회 및 라테란 공의회 전문가나 외부 위원 초빙을 통한 개방성과 객관성 확보	오늘날 전문가 또는 옵서버가 투표권 없이 총회에 초빙	성좌설립 B회, E회, F회, H회, I회 교구설립에서는 가회, 라회	사회 발전과 전문성 확대를 감안하면 전문가 참여가 더욱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도미니코회에서 사안에 따라 서원 연차별로 투표권에 차이를 두었던 것과 1974년 순회 열람편지에서 총회에 참가와 책임 유기서원자의 피선거권 배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	성좌설립 A회, C회, D회 E회, G회, I회 교구설립 나회와 라회	보편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마다 고유법으로 적절한 권한을 차등을 두며 규정할 있다.
프란치스코회의 역사에서 총회 안에서 다뤄야 할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 설정	여러 위원회 설정	성좌설립 E회, F회, G회, I회 교구설립 가회, 나회, 라회	현대의 회들 안에서는 총회 준비 위원회도 포함된다.

6) 회의에 다루지는 내용

역사적 특징	현대적 적용	적용 수도회	비고
초기 베네딕토회에서는 경영관리에 대한 보고 회의의 전통이 있었고, 사도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도직 수도회들이 사도직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점과 이를 위해 지역 장상을 소집하거나 핵심위원을 선정하여 이들을 결정자로 구성한 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성좌설립 H회	총회 회의 구성에 재무보고, 사업보고, 양성보고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사업 담당자를 사업 보고자로 소집	성좌설립 D회	
	총원장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	교구설립 나회	
프란치스코회에서 총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을 보존	회의록 혹은 의사록 보존에 대해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	성좌설립 D회, E회, I회 교구설립의 나회, 다회, 라회	

도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총회 구성에 관한 역사적 특징과 오늘날 한국 내 존재하는 수도들이 총회 구성의 규정 사이에 어떠한 일

치점이 있고 비슷한 특징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회들이 총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더 많이 취하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다.

4. 종합적 전망

총회의 주기에 대해 현행법은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수도승 전통에서는 매년 거행되었으나 그 주기가 길어진 것은 회원들이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고 그들이 모이는 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경비가 소모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물리적 한계가 극복된다면 현대의 수도회들이 발달된 이동수단과 그로 인해 단축된 시간 및 발달한 통신 매체의 이용을 통해⁷²⁾ 총회 주기도 짧게 하면서 다양한 참가와 공동책임성 및 공동합의성의 실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도미니코회에서 회원들의 요청으로 '최대 총회'가 열렸던 소집의 특별한 특징도 새로운 수단을 통해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7~19세기의 위계적 구조와 인원 구성의 제한으로 초래된 회의와 회의 통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법으로 당연직 위원을 제한하는 방법만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참여를 이끄는 제도적 변화⁷³⁾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총회 구성에 있어서 선출 대의원보다 당연직 의원이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고착될 필요가 없다. 대신 당연직 위원의 체험과 지식은 총회에 기여하도록 총회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그들의 선거권이나 안건 투표권만을 제한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총회에 기여하도록 하면서 비례대표나 일반 회원들의 권한을 확장시키고 참여의

72) 물론 이에 대해 교회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요청하는 점들은 고려해야 한다(Cf. *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rescript to the General Moderators of the Little Company of Mary(LCM)*, 1 July 2020, prot. no. Sp.R. 2452/20; FRANCIS, Message of the Holy Father Francis for the 53rd World Communications Day, 24 January, 2019,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73) 예를 들면 총회 진행 상황에 대해 발달한 매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적시에 상세한 정보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모색하여 풍요로움 속에 신뢰를 구축하는 총회 구성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역사 속에서 수도회들이 총회 참여에 강한 법적 구속력을 두었던 특징은 현대 일부 수도회들에서 발견되는데, 그러한 특징과 무관해 보이는 다른 회들 역시 이러한 내용을 고민하는 것이 공동체 선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적 참여가 점차 약화 되어가는 분위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속화되어 코로나 종식의 희망 속에서도 내리막을 치닫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 상황이다. 수도회들 안에 혹시나 총회 불참 회원이 증가한다면 초기 베네딕토회나 클루니 수도회의 역사적 교훈을 살려 총회 참여에 구속력을 부과하는 규정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나 자문위원 초빙 규정으로 회의의 개방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던 역사적 교훈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도회들이 세상에 몸담고 있고 발전된 사회의 여러 분야에 참여가 증가한 오늘날임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회원 양성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재산 처리 등의 문제에 임할 때에 수도회들이 사업 실패나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는 사례들을 감안한다면, 총회나 각종 회의에 전문인 초빙이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밖에도 사안에 따라 서원 연차별로 투표권에 차이를 두었던 것 그리고 유기서원자의 피선거권 배제의 과정들에 담긴 역사적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회의 특성과 회원 수에 맞춰 사안의 중대성의 차이와 결정에 참여해야 할 회원의 지식과 체험의 한계를 고려하며 권한 범위를 세세하게 고유법으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 성격과 총회에서 다루는 사안에 따라 다양한 위원회의 설치 가능성도 역사적 교훈 안에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총회의 목적이 ‘회원들 간의 화합과 일치’에 있었던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정해진 내용과 구성 아래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총회의 모습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정해진 주기성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회를 위한 총회 소집과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 총회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주제의 선정으로 회원들의 의

견을 수립하는 총회의 참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규정과 삶에 대한 점검, 회원들 간의 화합, 사도직의 재조명과 재산처리 및 양성문제,⁷⁴⁾ 안전처리나 사업에 대한 논의 등).

나오는 말

본고에서 살펴본 총회 구성의 역사적 특징이 현대 수도회들의 총회 구성을 위한 고유법 규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의 인과관계의 역사적 과정을 조사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 영향이 역사적 전달을 통해 회의 전통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총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일반 지식 전달의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측 가설들을 토대로 하면 나름의 근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로 총회 구성의 본래적 목적인 '회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 안에 일치와 참여를 지향하는 가운데 필요한 총회 구성'의 관점으로 '역사적 흐름에 드러난 특징'에 현 한국 수도회들의 규정들을 접목시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수도회 고유법에 규정된 총회 구성의 규정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통해 수도회의 성격과 삶의 형태 및 현대적 상황에 맞춰 규정들을 적용하거나 개정 및 입법을 시도하는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수도회들이 자신들의 총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더 깊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회의 성격에 따라 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다른 규정들도 창조적이고 적합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상의 고찰을 마친다.

74) 수도회 카리스마와 사도직의 조명 안에서 재산 손실의 문제와 복음적 재투자 및 이러한 감각에 대한 양성의 문제는 대 단위의 총회에서 획기적인 구성을 통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Cf. Congregazione per 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e l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Lettera Circolare) *Linee orientative per la gestione dei beni n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e nell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4).

[참고 문헌]

1. 교회문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Sancta Sedes, 『교회법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역,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0.
- 바로로 6세, 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 1966),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도 생활 교령』(Perfectae Caritatis, 196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Benedictus XV, Codex Iuris Canonici, in *AAS* 9 Pars II(1917), in coll. Dominicus Andrés Gutiérrez, *Leges Ecclesiae v. VII*, Roma, Edurcla, 1994.
- Congregazione per 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e l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Lettera Circolare) *Linee orientative per la gestione dei beni n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e nelle Società di vita apostolica*,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14).
- SC Religiosorum, Resp. “Dubia de celebratione capituli generalis in Congregationibus Iuris Dioecesanis”, in *AAS*. 13(1921), 481-482.
- SC Religiosorum, indultum, “Facultas datur differendi capitulum generale Ord. Carm. Discalc. usque ad finem belli”, in OCHOA, *Leges Ecclesiae*, (anni 1942~1958), 2~1724, col. 2153 / in *AAS*. 14(1922), 428.
- SC Religiosorum, indultum, “Tempus celebrationis capituli generalis O.F.M. Conv. iterum prorogatur ad annum”, in OCHOA, *Leges Ecclesiae* (anni 1942~1958), 2~1735, col. 2168.
-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Oecumenici Vaticani II, 3, n.14, periodus III, pars VII: Congregationes generales CXIX~CXXII.
- Acta Synodalia Sacrosancti Concilii Oecumenici Vaticani II, 4, periodus IV, pars III: Congregationes generales CXXXVIII~CXLV.
- 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 canonici recognoscendo, *Communicationes*, 12, 1981.
- Congregatio Episcoporum et Regularium, «Normae secundum quas S. Congregatio Episcoporum et Regularium procedere solet in approbandis novis institutis votorum simplicium», Typis S.C. de Propaganda Fide, 1901, Roma.
- Congregatio pro Institutis Vitae Consecratae et Societatibus Vitae Apostolicae, rescript to the General Moderators of the Little Company of Mary(LCM), 1

- July 2020, prot. no. Sp.R. 2452/20.
- CRSI, decree clericalia instituta, 27, Nov. 1969, in *AAS.* 61(1969), 740.
- CRSI, rescript to the OFM Procurator General[private], 7 February 1969, prot. no. 11897/69, in Ochoa, *Leges Ecclesiae*, 4, col. 3714.
- FRANCIS, Message of the Holy Father Francis for the 53rd World Communications Day, 24 January, 2019, Roma, Libreria Editrice Vaticana.
- “Par une lettre sur les Actes du Chapitre général spécialin”, in C.p.R. 55(1974), 76~80.
- Pius X, motu proprio, *Arduum sane munus* 19 March 1904 in *AAS.* 36(1904), 549.
- Pontificia commissio codici iuris canonici recognoscendo, *Communicationes*, 12, 1981.

2. 단행본

- A.M. WALZ, *Compendium Historiae Ordinis Praedicatorum*, Rom, Herder, 1930.
- Beal, John P. / Coriden, James A. / Green, Thomas J., eds.,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N.Y.: Paulist Press, 2000.
- Constitutiones generales Minorum Alexandrinae (a 1500), cap. VIII, in: *Chronologia historico-legalis Seraphici Ordinis Fratrum Minorum Sancti Patris Francisci*, tomo I, colligebat P. Michael Angelus a Neapoli, Neapoli, ex Typographia C. Cavalli, 1650.
- De Paolis, Velasio,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ed., Mosca, Vincenzo, Venezia: Marcianum press, 2015.
- Dominicans, *Constitutiones Primaevae S. Ordinis Praedicatorum*, Fiesole: Conventus S. Dominici de Faesulis, 1962.
- Etzi, Priamo, *Attività di governo e prassi della consultazione negli istituti di vita consacrata: una lettura dei canoni 627 e 127 del Codice di diritto canonico*, Roma: Pontificium Athenaeum Antonianum, 2001.
- Fonti Francescane, *Scritti e biografie di san Francesco d'Assisi. Cronache e altre testimonianze del I secolo francescano. Scritti e biografie di santa Chiara d'Assisi*, Ed. Messaggero, Padova 1983.
- Harding, Stephanus, *Carta Caritatis*, Vatican City: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34.
- Iannone Fillippo, *IL CAPITOLO GENERALE(Saggio Storico-Giuridico)*, Roma, Edizioni Dehoniane, 1998.
- L. AUVRAY(ed.), *Registres de Gregoire IX. Recueil des Bulles de ce Pape*, Sydney, Wentworth Press, 2016.

- LESAGE G., Capitolo, in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2, col. 167~168.
- Lippini Pietro, La vita quotidiana di un convento medievale(Gli ambienti, le regole, l'orario e le mansioni dei Frati Domenicani del tredicesimo secolo), Edizioni Studio Domenicano, Bologna, 2003.
- M. Cotter Elizabeth, *The General Chapter in a Religious Institute(with Particular Reference to IBVM Loreto Branch)*, New York, Peter Lang, 2008.
- M. ROTHENHAEUSLER, De Monachismo occidentali Benedictino, in Acta et Documenta Congressus Generalis de Statibus Perfectionis, Romae 26.XI~8 XII.1950, 1, Roma, Pia Societa San Paolo, 1950.
- Nava P.L., *L'evento capitolare. Dall'indizione per la convocazione alla ricezione*, Centro Studi USMI, Roma 1997.
- P., LADEUZE, *Etude sur le cénobitisme pakhomien, pendant le IV siècle et la première moitié du V*, Paris, Paulin Laudeuze, 2018.
- MANDONNET P., Saint Dominique. L'Idée, l'Homme et la Oeuvre, 2, Paris, Desclée de Brouwer et Cie, 1938.
- P., MORTIER, Histoire des Maitres Généraux de l'Ordre des Frères Prêcheurs, 6, Paris, Alphonse Picard et Fils, 1913.
- RACCA G., *La Regola dei Frati Minori*, S. Maria degli Angeli-Assisi, ed. Porziuncola, 1986.
- Sanna A., *Il capitolo conventuale*, Roma, Curia generale OFMConv., 1978.
- Scarvaglieri Giuseppe, *Il Capitolo generale(Preparazione Celebrazione Attuazione)*, Milano, Àcora, 2002.
- Wagner, E., *Historia Constitutionum Generalium Ordinis Fratrum Minorum*, Romae, ed., Stürtz, H., Würzburg, 1954.
- Woodall, G.J., *A Passion for Justice(An Introductory Guide to the Code of Canon Law)*, Herefordshire, Gracewing, 2011.

3. 수도회 고유법

- 글라렛선교수도회, 『회헌』, 2000.
- 글라렛선교수도회, 『규칙』, 1999.
- 글라렛선교수도회, 『지침서』, 1999.
- 마리아회, 『생활규칙(회헌)』, 1981.
- 말씀의 성모영보 수녀회, 『회헌과 회칙』, 2011.
- 사랑의 선교 수사회, 『회헌과 규칙서』, 2003.
- 살레시오회, 『회헌』, 1984.

- 아우구스티노수도회, 『회헌』, 2013.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회헌』, 2001.
예수성심 시녀회, 『회헌(시안)』, 2020.
예수성심 시녀회, 『회칙(시안)』, 2020.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회헌 회칙』, 2017.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회칙』, 2009.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회헌과 규칙』, 2016.
한국의방선교수녀회, 『회헌과 회칙』, 1985.

4. 간행물

- Alonso S.M. , “Qué es un Capitulo general”, in *Vida Religiosa* 50~31(1981), pp.74~80.
Ara S., “Los capitulos provinciales de renovaci6n y el derecho del los Hermanos Menores Capuchinos”, in *Estudios franciscanos* 77(1976), pp.253~267.
Berlière U., “le Chapitres généraleux de l’ordre de Saint Benoit avant le IV Concile de Latran (1215)”, in *Revue Bénédictine* 8(1981), pp.255~264.
Gutierrez L., “De natura juridica Capituli generalis specialis religiosorum”, in *Commentarium pro Religiosis* 48(1967), pp.241~258.
G. VAN DEN BROECK, Le Chapitre Général dans les Instituts Religieux, in *Apoll.* 40(1967), pp.491~495.
Peinador A., “Capitula et Consilia in regimine religiosorum. Observationes pastorales”, in *Commentarium pro Religiosis* 46(1965), pp.345~355.
R., VAN WAELFELGHEM, Les premiers Statuts de l’Ordre de Prémontré, in *A.O.P.* 9(1913), pp.1~74.

5. 사전

- 가톨릭대학교 고전라틴어연구소, 『라틴-한글 사전』,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5.
MISSEREY L. R., Chapitres de Religieux, in *Dictionnaire de droit canonique*, 3, coll., 595~610.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한국 내 수교회들의 총회 구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총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 적용의 적합성을 도출하는데 기여하며 기존 법 조항들의 개정과 적합한 입법의 시도를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회 구성’(소집, 주기, 인원 구성, 기간, 진행 절차의 구성 등)에 대한 역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 내 수교회들의 고유법에 규정된 총회 구성의 규정들과 부합하는 면을 접목시키며 그 의미를 펼쳐보는 것이다. 첫째 장에서는 총회 구성의 역사적 특징을 다루었다. 둘째 장에서는 총회 구성이 보편교회 안에서 입법화되는 과정과 현행 법전의 입법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요약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내 수교회들의 고유법에 규정된 총회 구성의 풍요롭고 섬세한 특징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특징이 역사적 변천에서 살펴본 특징과 일치 또는 부합하는 면을 도표로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각 수교회가 자신의 고유법에 규정된 총회 구성의 특징과 의미를 역사적으로 확대된 시각에서 이해하는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수교회들은 자신의 고유법에 담긴 총회 구성의 특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배경으로 그 적용의 적합한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가 각 수교회들이 회(會)의 고유한 성격에 맞춰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법 정신을 살리며 총회 구성의 입법을 시도하는 데에 일정 수준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본고에서 이러한 역사적 특징이 현대적 특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 주제어: 총회, 총회의 구성, 수교회, 법제사, 고유법